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의 니치(niche)적 특성과 공생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

정규식 (동아대학교, 조교수)

〈목 차〉

- I. 문제 제기
- II. 위기의 도래와 극복 방안 모색의 양상
- III. 문제 해결을 위한 니치적 상호작용
- IV. 형질 변이를 통한 공생 지향과 인문학적 의미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니치(niche)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는 소화(笑話)적 성격과 약자들의 협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 왔다. 호랑이를 힘센 권력자로, 할머니와 등장물들을 약자나 민중으로 설정하여 권력자에 맞선 민중의 승리로 해석하였다. 본고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쳐야 하는지, 즉 문제 해결 방식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에서 생태적 지위를 의미하는 니치를 활용하였다. 니치는 자연 생태계에서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법칙으로 여기에는 적소와 공동체의 원리 등이 작동된다. 본고는 이를 원용하여, 위기 상황의 도래와 문제 해결 방식 모색의 양상, 적소와 공동체 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니치적 상호작용 방식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형질 변이를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집중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공생의 인문학적 의미도 고찰하였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다. 결국 이 이야기는 강자와의 대립에서 약자들이 승리하는 과정에 대한 소화적 이야기를 넘어 어떤 위기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 방식과 공생에 대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밭죽 할머니와 호랑이」, 니치, 적소, 공동체, 형질 변이, 공생

I. 문제 제기

우리 사회의 생태와 환경, 공동체의 문제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이다. 오늘날 우리는 야생, 사육, 반려 동물과 각각 보호적, 도구적, 공감적 관계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인간중심적 관계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는 이러한 관계로 발생하는 인간과 비인간생명체(특히 동물) 사이의 오작동 문제들이 즐비하다. 멧돼지의 도심 출몰과 사살,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나 소의 살처분과 침출수, 개물림 사건이나 야생화된 개폐의 출몰 등은 문제의 편린에 해당하며, 우리가 경험했던 사스(SARS)나 메르스(MERS)를 비롯하여 현재의 코로나 19(COVID-19)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가 인간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듯했으나 최근 발생한 코로나 19는 여전히, 우리가 동물들과 어떤 관계를 지향하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사유하게 한다. 인공지능을 앞세운 데이터 제국주의가 초연결 사회를 형성하였음에도 코로나 19의 감염과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씻기 등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 인류가 어떤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를 너무나 잘 드러낸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설화 문학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본고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한다. 주지하듯, 설화 문학은 우리 선조들의 오래된 삶의 지혜가 응축된 문학 갈래이다. 거기에는 그 어떤 갈래보다 다양한 관계성이 등장한다. 소설이나 노래 문학 등이 주로 인간 혹은 인간 사회 등에 집중하는 반면 설화는 인간, 동물, 식물, 광물 등을 넘어 초자연적인 존재(상상의 동물이나 세계)나 현상 등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이다. 설

화 문학이 지니는 이 같은 풍부한 문화적 자원은 지나온 시간에 의한 축적물임과 동시에, 다가올 시간을 위한 탐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여, 본고는 우리의 설화 문학 가운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대상으로 여기에 내재된 생물학적 특징과 공생의 원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 인간이 세계를 대상으로 사유하고 행위했던 기존의 방식을 반성하고 성찰하며 나아가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는 소화(笑話)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반복성과 의태성이 특징인 등장물의 형상, 욕심을 부리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어리석은 호랑이의 행위 등은 이야기 향유자들에게 흥미로운 웃음을 선사하는 주요 기제로 작용한다. 또한 이 이야기를, 힘들게 농사 지은 팔죽 할머니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호랑이를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상징으로 보고 이에 맞서 할머니를 구해내는 동물과 물건들을 약자와 민중의 상징으로 본다면, 아무리 보잘 것 없고 약한 존재라도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¹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다. 주지하듯, 이러한 해석은 전통사회에서 부패하고 부정한 상층을 향해 품었던 민중들의 의식과 닮아 있어 해석의 정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이야기는 동화로 각색되어 교육용 교과서와 아동용 전래 동화집 등에 빈번하게 수록되는 대표적인 이야기 문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²는 웃음 유발이라는 소화적 성격과 약자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교훈적 성격이 워낙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해석이 끼어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이야기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기존 해석의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1. 권혁래, 「팔죽할멈과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2. 현재 이 유형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채록 자료집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도 「팔죽할멈」, 「팔죽할멈과 호랑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등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기존 명칭 가운데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를 사용함을 밝힌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를 도와주는 것들이 주변에 흔히 널린 사소한 사물이나 아주 작은 동물들이며 이런 하찮은 것들이 강력한 힘을 지닌 호랑이를 퇴치한다는 설정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상식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그것 자체로 우수우며 나아가 그것들이 호랑이를 퇴치하는 과정도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어 향유자들의 웃음을 유발³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호랑이로 대변되는 지배 집단 혹은 강자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 할머니로 대변되는 약자 집단은 현실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의 도움으로 현실적 문제를 타파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이야기가 아닌 현실에서는 구현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라도 이야기 향유를 통해 경험하는 의식의 분화와 통합 등은 힘겹고 어려운 현실 세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⁴하기도 한다. 이처럼 기존의 논의들은 대체로 이 이야기가 지닌 소화적 성격, 민중 혹은 피지배자들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교훈적 성격에 집중한 논의들이 대부분이었다.

기존 논의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인간 사회의 권력 문제에 더 집중한 논의도 있었다. 호랑이는 자신의 터무니없는 오만과 부질없는 탐욕 때문에 속아 넘어갔는데⁵ 이는 독점적 권력의 횡포와 사적 욕망이 결합된 결과, 올바른 문제 인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어 스스로 못하는 것이 없다고 여기고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거스를 자가 없다고 생각⁶하여 이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는 논의 역시 지배와 피지배, 권력과 무권력 등과 같은 대립적 구도로 풀이한 것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에 대한 민중적 저항에 관한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아이들의 성숙 단계와 연관하여 해석한 논

3. 김복순, 「동물담의 웃음 유발 방식과 특성 - 바로 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205쪽.

4. 신혜선, 「전래동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권 6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83~484쪽.

5.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집, 실천민속학회, 2012, 210쪽.

6. 위의 글, 211~212쪽.

의도 있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를 ‘그림자⁷로서의 호랑이’로 분류하여, 이 호랑이는 반사회적 동물로서 자기중심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고를 보이는 무질서한 존재이며 공동체에서 일정한 역할과 지위를 할당 받지 못하여 사회화에 실패한 존재⁸로 설정하여 이를 통해 성장하는 아이들이 이러한 존재를 일상에서 대면하면 위협하기 때문에 설화와 같은 가상의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성장해야 사회화에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의 효용적 가치를 탐색⁹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서는 문화사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 대화하고 타협하여 자연을 슬기롭게 개척하는 모습¹⁰이 형상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과 간접 대응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이며 도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인공물들로 이를 통해 상식적 또는 피상적 세계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통해 세계를 바꾸어 나가는 인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¹

지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기존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대한 연구는 소화적 측면과 민중의 협력적 문제 해결의 측면을 탐색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성장과 연관한 논의, 문화사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논의들도 있었지만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이 이야기를 기존 논의 가운데 하나인 민중의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의 연장에서 이를 보다 심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7. 여기서 그림자는 인류 초기의 기억들 혹은 문명화 과정에서 억압된 기억들로 규정된다.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내 동물 형상」,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83쪽.

8. 위의 글, 86~87쪽.

9. 위의 글, 99쪽.

10. 신연우, 「「녹두영감」과 「팔죽할멈」 설화의 문화사적 이해」, 『구비문학연구』 41집, 한국구비문학회, 2015, 192쪽.

11. 위의 글, 193~194쪽.

이와 연관되는 기존 논의들을 면밀히 분석하면 중요한 지점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약자로 대변되는 할머니를 도와 준 여러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쳤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힘센 상대와 맞서는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서로 힘을 합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소중한 가치이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처 방식인가를 아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합쳐야 하는 것만 알고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대상으로 위기에 처한 할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위기 극복 방식에 집중하여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이 과정에서 생물학적 개념인 '니치(niche)' 이론을 적극 활용할 것인데, 이런 점에서 이 논의는 일종의 통섭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승되어 온 기저에서는 힘센 대상과 맞서 살아야 하는 약한 자들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처 방법¹²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연으로부터 익힌 선조들의 지혜에서 기인함을 고찰할 것이다.¹³ 그리고 이러한 관점이, 인문학적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도 살피고자 한다.

II. 위기의 도래와 극복 방안 모색의 양상

설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심층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설화의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요구된다.

12. 이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탈놀이가 보여주는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탈놀이에서는 하층민으로 표상되는 말뚝이나 취발이가 주로 재담을 통해 상층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방식이지만 여기서는 일상적 대상들이 직접적인 물리적 행위를 통해 호랑이를 징벌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언어적 비판에 가깝고 후자는 물리적 공격에 가깝다.

13. 본고는 질적 연구를 지향하므로 이 이야기의 유형이나 각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함을 밝힌다.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편 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할 것이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을 자주한다. 역사·문화적 맥락에 위치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런 표현은 수신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말은 공허할 뿐이며 이 말을 듣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감동도 주지 못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견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측면은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 이야기를 해석할 때, 약한 존재가 강한 상대와 맞서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정도의 해석에 머문다면 그것은 너무나 평범하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힘을 어떻게 합쳐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일반론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오게 되고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지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당하지 않으면서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민중을 호출할 수 있는 것이다. 협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는 팔 받을 때는 할머니의 생명을 위협하는 호랑이의 등장으로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할머니를 중심으로 할머니의 일상적 삶과 연관되는 존재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호랑이가 할머니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할머니의 주위에 있던 다양한 사물(존재)들이¹⁴ 힘을 합쳐 할머니를 도와 위기를 극복하여 할머니가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면 위기 상황의 도래와 문제 해결을 통한 위기 극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 여기서 ‘사물’은 생물적 존재와 무생물적(주로 인공물) 존재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주지하듯,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물 가운데는 달걀, 파리, 개 등과 생명체도 있고 지게, 바늘, 명석 등과 같은 인공물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칭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를 찾기가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사물’과 더불어 ‘등장물’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전반부	가. 호랑이가 팔 발을 매는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한다. 나. 할머니는 팔죽을 먹은 후, 잡아먹으라고 한다. 다. 할머니가 팔죽을 끓이면서 온다.
후반부	라. 여러 사물(파리, 달걀, 바늘, 개똥, 게, 맷돌, 명석, 지게 등)들이 팔죽을 먹고 할머니를 도와준다. 마. 호랑이는 죽고 할머니는 잘 산다.

그런데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전환되는 과정이 흥미롭다. 위기 상황이 도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야만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직면하였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맞이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먼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할머니가 ‘당장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장면은 주목을 요한다. 설화에서 할머니는 ‘잡아먹겠다.’는 호랑이의 위협을 듣고는 그 요구를 그대로 따르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을걷이를 해서 팔죽을 끓여 먹은 후에 잡아먹어라.’라고 역제안을 한다. 호랑이의 프레임(frame)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프레임으로 유도하여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다.

“에이고, 그렇지마는 좀 참아라. 내가 이러구로 늙으이가 이 씨가시(씨앗)를 허리도 아프고, 그러구로 이래 숨가가지고 이 팔죽이라도 한그릇 묵고 내가 죽어야 안 대겠다.” 한계네, “아—, 소원이 그러만 그라자.” 그카는 기라.¹⁵

“아이가 아이가, 내가 그레가 되겠나? 이 풀밭을 내가 애트지게 매 가지고 풀죽이나 한그릇 깊이 묵고 죽어야제.” 이래 쿠거덩. “그레 풀밭을 인자… (말을 고쳐서) 깊이 묵고 저 할매 그러믄 깊이 잡숯고, 깊이 잡수소.” 쿠거덩.¹⁶

15.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제보자: 형기순, 채록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채록일: 1980년 2월 29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웹 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16. 「호랑이와 할머니」, 제보자: 김맹순, 채록지: 경상남도 진양군 미천면, 채록일: 1980년 8월 4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웹 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그렇게 할머니는 “야야 호랑아, 나는 지금 이렇게 풀을 많이 심어놨더니 내가 없으면 누가 이 풀을 가꾸겠나, 이 풀이 잘 돼서 가을에 풀이 많이 열어서 거두어서 팔죽을 한 솥 끓여서 많이 먹은 후에 잡아 먹어라. 지금 잡아 먹지 말고 가을에 와서 잡아 먹어라.”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게 호랑이는 그러라 하고 갔다.¹⁷

인용문들과 같이, 할머니는 당면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확보한다. 할머니가 ‘지금 당장 잡아먹지 말고 팔죽이라도 끓여 먹고 잡아먹어라.’라고 하는 이유는 각편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할머니가 호랑이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제안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

당면한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호랑이에게 역제안을 해서 확보한 시간 동안 할머니가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자체에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의 서사적 전개를 통해, 이 시간 동안 할머니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팔은 6~7월에 파종하여 10월경에 수확하는 점, 이야기에서 주로 할머니가 김을 때는 도중에 호랑이를 만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할머니가 확보한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김매기는 작물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를 제거하는 행위로서 식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 집중된다. 수확기에 가까워지면 잡초의 성장도 줄고 말라서 시들기 때문에 김을 땄 필요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김매던 할머니가 호랑이를 만난 후, 팔죽을 끓이게 되는 시점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 할머니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한 후, 팔죽을 끓이는 날 함께 힘을 합쳐 호랑이를 물리치자고 의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일의 성공여부는 알 수 없으나 팔죽 한 그릇을 줄 테니 함께 힘을 합치자고 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호랑이가 올 날을 기다렸다고 할 수 있다.

17. 「할머니를 도운 계란 자라 물개똥 송곳 절구통 명석 지게」, 임석재 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 1, 평민사, 1990, 184쪽.

드디어 호랑이와 약속한, 팔죽 끓이는 날이 되었다. 할머니는 팔죽을 끓이면서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라며 울기 시작한다. 앞의 ‘다’ 부분이다.

풀을 한 솥 깊이 가이고 마 큰 가매(가마솥)에 한 가매 깊이 댔어요. 깊이 놓고 앉아 운다.
“아이고, 이 저 풀죽을 묵고 내가 죽어야 되긴데, 우찌 죽으꼬?” 쌓암서 울어 쌓안께¹⁸

가실이 대서 풋을 걸어서 할매는 풋죽을 끓임서 운다. 포리가 행 날라와서 “할매요 할매요 와 울우?”쿤다.¹⁹

노천네는 집에 와서 죽을 한 가매 쉼 개지구 먹으라 하는데 백호한테 째히어 맥힐 거를 생각하니 슬퍼서 먹디두 못하구 울고 있었어.²⁰

인용문들처럼, 할머니는 팔죽을 끓이면서 운다. 그러나 이 울음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다. 이 날의 울음은, 나약하고 무능한 할머니의 대책 없는 울음이 아니라 일종의 신호 같은 것이다.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늙은 여인으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신세를 한탄하는 울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울음은 그 동안 자신과 함께 했던 공동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와 같다. 이른바 오늘이 바로 ‘그날’임을 알리는 외침이면서 구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평범한 인간적 존재가 아닌 일종의 신적 존재 같기도 하다.²¹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며 상황이 역전된다. 이후의 내용은 주지하듯, 등장물들의 놀라운 협업과 호랑이의 일방적인 패배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독특한 문제 해결 방식이 내재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는 위기의 도래를 맞아 당

18. 「호랑이와 할머니」, 제보자: 김병순, 채록지: 경상남도 진양군 미천면, 채록일: 1980년 8월 4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웹 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19. 「할머니를 도운 파리 달걀 계 떡석 지게」, 임석재 전집 10,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1, 평민사, 1993, 97쪽.

20.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 임석재 전집 2,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 편 2, 평민사, 1988, 58쪽.

21.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는 자연 질서를 조정하는 지모신적(地母神的) 특징을 지닌 존재 같기도 하고 레비 스트로스가 말한 브리콜라주(bricolage) 같은 존재(레비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1996, 69~70쪽)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할머니에 대한 인물 성격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본고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성격 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성격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기대한다.

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는 프레임의 전환을 피하였고 나아가 확보한 시간 동안 어떠한 행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다.

Ⅲ. 문제 해결을 위한 니치적 상호작용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의 핵심은 다양한 사물들이 할머니를 도와 호랑이를 물리친다는 점이다.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팔죽 한 그릇을 먹고 할머니를 도와준 존재들은 할머니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일상적 사물들이다. 이들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호랑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물리치게 된다. 그렇다면 그 힘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어떤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른 존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주는 존재들의 특징을 알고 그들이 지닌 특징에 맞는 역할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각자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만 합치게 되면 단순한 물리적인 조합에 그쳐 자칫 역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힘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합쳐진 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서로 힘을 합치는 결합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호작용해야 한다. 결국, 결합 자체가 아니라 결합된 집단의 힘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적화되도록 하는 상호작용의 원리와 방법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만 협력의 필요성과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고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힘센 상대도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일반론적 차원보다는 그런 존재와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제시해주는 문제 해결의 방법론적 차원에 집중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생물학에서 사용하는 니치(niche)라는 개념을 원용할

것이다. 니치란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고유한 생태적 지위와 역할을 의미한다. 이 말은 원래 건축물의 구조에서 연원한 것으로, 작은 조각품이나 꽃병 등을 올려놓기 위해 건축물의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을 뜻하는 용어이다. 그런데 지금은 진화론, 생태학, 진화생물학, 사회생물학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들 영역에서 니치는 '생태적 지위(生態的地位, ecological niche), 즉 어떤 생명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갖는 역할(role), 지위(position), 기능(function)'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 생태계는 각각의 생명체가 지니는 고유한 니치로 인해 종의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니치는 생태계의 구성 원리라고 할 수 있다.²²

니치가 지니는 이러한 특징은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에 상당히 유용한 측면이 있다. 주지하듯,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것이 힘센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는 원동력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원리로 작용했는가이다. 니치적 관점으로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분석하면, 미미하고 나약한 존재들이 강력한 힘을 가진 호랑이를 물리칠 수 있었던 방법과 관련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소(適所)의 원리이다.²³ 니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소'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장소는 그 생명체의 먹이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의식주(衣食住)가 모두 중요하지만 의(衣)가 필요 없는 자연 생태계에서는 주(住)가 곧 식(食)이므로 주(住), 즉 장소가 개체의 번식과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니치에서 장소, 즉 그 존재의 유의미한 활동 공간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존재가 어떤 공간에 위치하느냐 하는 것은 니치의 핵심이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양한 등장물

22. 최재천, 『호모 심비우스』, 이음, 2011, 28쪽; 장대익, 『다윈의 식탁』, 김영사, 2008, 256~259쪽; 정규식, 『중간공동체론』, 인문과교양, 2018, 26~32쪽.

23. 'niche'는 원래 '벽감(壁龕)', 즉 벽의 '요소(凹所)'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를 '적소(適所)'로 번역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생태적 지위'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니치에서 장소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니치의 다양한 의미에 관해서는 정규식(위의 책, 62~64쪽)을 참조할 것.

은 각각의 역할이나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다.

밤이 불이서 툇 튀어나옴서 호랑이 눈을 빼빼렀다.²⁴

그래 풀죽 한 그럭 덜렁 떠 줘다. 떠 준께 인자 묵고 인자 방천장에 요딱 올라붙어 있거
덩요, 파리가.²⁵

송곳은 풀죽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부서짱 바닥에가 꾀꿉이 서 있었다.²⁶

자래넌 풀죽얼 다 먹고 물통에 들어가서 숨었다.²⁷

그리서 풀죽 한 그럭얼 주니께 도구통언 풀죽을 다 먹고 방문 우구가 올라 앉았다.²⁸

이래 풀죽 한 그럭 준께 묵고 마당에 저어 떡 폐이가(퍼져) 있어요.²⁹

인용문들과 같이 파리는 벽에, 밤이나 달같은 부엌의 불 속에, 게나 자리는 물속에, 바늘이나 송곳은 부엌 바닥에, 맷돌이나 절구통은 천장 위에, 덕석은 마당에, 지게는 문 앞에. 어느 하나 겹치거나 중복되는 것이 없다. 각자가 각각의 위치에 자리하여 주어진 역할에 따라 거기에 맞게 기능할 수 있도록 적소의 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자신의 특징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함으로써 등장물 모두가 일종의 설화적 차원의 생태적 지위를 실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당연히 적재(適材)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적절한 장소는 적절한 재능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이다. 달같은 벽에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 다른 사물들도 마찬가지이다.

24.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명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 임석재 전집 12, 『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 편, 평민사, 1993, 60쪽.

25. 「호랑이와 할머니」, 제보자: 김맹순, 채록지: 경상남도 진양군 미천면, 채록일: 1980년 8월 4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웹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26. 「할머니를 도운 계란 자라 물개똥 송곳 절구통 명석 지게」, 임석재 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 평민사, 1990, 185쪽.

27. 「여인을 도운 계란 자라 절구통 명석 지게 작대기」, 임석재 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 평민사, 1990, 182쪽.

28. 위의 글, 182쪽.

29. 「호랑이와 할머니」, 제보자: 김맹순, 채록지: 경상남도 진양군 미천면, 채록일: 1980년 8월 4일, 한국구비문학대계 웹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이 이야기는 이와 같은 적재적소의 원리를 기반으로 각자의 역할 수행이 이뤄진다. 문제 해결에서 상황과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적재적소를 갖췄더라도 실수를 하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결과는 다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니치에서도 각각의 생명체가 지니는 역할 수행이 아주 중요하다. 건강한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어 다양한 종들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체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³⁰ 이런 측면에서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등장하는 파리가 불을 끄고, 달걀이 불속에서 터지고, 바늘이나 송곳이 찌르고, 자라나 게가 깨물고, 뱀돌이나 절구통이 내려치고, 덕석이 감고, 지게가 짊어지는 것은 등장물들이 자신의 고유한 니치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설화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파리가 불을 끄지 않고 달걀이 터지지 않았고 바늘이 찌르지 못하고 덕석이 감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었을 것이다.

결국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의 이면에는 적재를 바탕으로 한 적소의 원리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등장물들의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것 같은 이 원리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해결 방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또 다른 원리인 공동체의 원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원리이다. 자연 생태계의 구성 원리로서의 니치는 종 공동체를 위한 필수적 원리이다. 일정한 영역에서 다양한 종들이 고유한 니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 생태계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아래와 중간, 그리고 위에는 거기에 생존하기 적합한 각각의 존재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니치로 살아가며 심지어 죽은 가지에도 다른 생명체가 깃들어 살아간다. 구멍 속이나 상처가 나서 진액이 흐르는 곳에서는 새나 곤충들이 몰려와 살아간다.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한 나무를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한다. 여기에는 미생물, 곤충, 조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 종의 구분이

30. 물론 자연 생태계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없을 경우 이것은 저절로,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없다. 나무라는 하나의 대상을 중심으로 각자가 지닌 고유한 니치를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여 나름의 방식대로 생존과 번식을 하면서 자연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 역시 니치의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할머니를 중심으로 인간, 파리·달걀·게·자라 같은 비인간생명체, 그리고 바늘·송곳·덕석·맷돌·지게 같은 비생명체 등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생명을 지닌 것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할머니의 생활 세계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사물들이 이른바 잡종공동체를 형성하여 힘을 합친 결과, 호랑이에 의한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니치의 구성에서 비생명체, 즉 무생물의 중요성이다. 무생물은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체가 깃드는 곳이다. 흙이나 물, 바위나 죽은 나무 등은 분명 살아 있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이들이 없으면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니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생명체들은 생명체의 삶에 절대적인 존재들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늘, 맷돌, 덕석, 지게 등은 '인공과 자연'의 이항대립이 아니라 생명체와 함께 호흡하는 비생명체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³¹

니치의 시각으로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면, 적소와 공동체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자연은 지구에서 생명체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서 종 다양성을 위한 그들만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각각의 생태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그것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공생해 온 것이다.³² 그러나 당

31.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를 「녹두영감」 설화와 대비하여 자연과 문명(인공)이라는 이항 대립적 시각에서 해석한 주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녹두영감」 설화에서 영감이 밤, 대추, 꽃감 등과 같은 자연물을 사용하여 꽤배한 반면, 이 이야기에서 할머니는 바늘, 지게, 맷돌, 명석 등과 같은 인공물을 사용하여 승리했다(신연우, 앞의 글, 189쪽)는 점에서 이 이야기의 문명사적 의의를 찾고 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인공물뿐 아니라 파리, 달걀, 게, 자라 등의 자연물도 등장한다는 점이나 등장물을 문명과 자연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으로 나눈 점 등이 그러하다.

32. 이 이야기를 니치적 관점으로 파악할 때 가장 문제 되는 존재가 호랑이이다. 호랑이 역시 자연 생태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므로 공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원리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 원리가 파괴되는 순간 자연 생태계의 질서 체계가 허물어져 자연과 환경이 일시에 황폐화되기 때문이다.

IV. 형질 변이를 통한 공생 지향과 인문학적 의미

니치적 차원에서는, 자연적 질서가 무너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놓일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니치는 자연 생태계에서 다양한 종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원리인데 여기에는 주목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바로 ‘형질 변이(character variation)’라는 것으로 다양한 종들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이다. 동일한 서식지에서 동일한 먹이 활동을 하는 종이 있을 경우, 이 종들이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형질을 변화시켜 공존공생을 도모하는데 이를 통해 각각은 고유한 니치를 지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연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근원적 이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물가에서 주로 활동하는 홍학(Flamingo), 도비오리(Dabbling ducks), 되부리장다리물떼새(Avocet), 검은머리물떼새(Oystercatcher), 피오버스다트(Plover) 등과 같은 새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서로 경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니치를 지니게 된다.³³ 홍학은 수심이 가장 깊은 곳에서, 도비오리는 그 다음 깊은 곳에서, 되부리장다리물떼새는 그 다음 깊은 곳에서, 검은머리물떼새는 그 다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피오버스다트는 수심이 가장 얇은 곳에서 주로 활동하는데, 그들의 형질은 각 영역에서 먹이 활동하기에 적합하도록 변이되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홍학의 목과 다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랑이도 하나의 생명체이긴 하지만 호랑이는 원래부터 할머니의 생활 세계에 없었던 존재이므로 할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호랑이는 공동체를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강력한 위기의 상황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호랑이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위기의 상황이나 환경의 표상으로서 극복의 대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할머니를 비롯한 여러 등장물들은 호랑이의 도래라는 자연 질서를 파괴하려는 존재나 상황에 맞서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33. 'Ecological niche' (<https://www.linkedin.com/pulse/ecological-niche-dr-tohid-nooralvandi>, 2020년 9월 27일 접속)

리는 다른 새들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변이되었고 이로 인해 수심이 다소 깊은 곳에서도 먹이 활동하는 데 유리하여 다른 종들과 경쟁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접한 공간에서 생존하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은 각자의 고유한 니치를 지니는 방향으로 형질 변이를 하였고 이를 통해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공생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자연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딱따구리와 동고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둘은 원래 비슷한 나무의 벌레들을 먹이로 삼았는데 두 종이 경쟁을 하다가 충돌이 생기자 동고비가 형질 변이를 하여 나무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딱따구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동고비는 딱따구리와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먹이 활동을 하다가 둘이 만나면 한 쪽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식으로 공생을 모색한 것이다. 그 결과 동고비의 유전 형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다.³⁴ 이것이 니치가 지니는 특징이다. 니치의 이러한 특징을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적용하면 이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 장에서는 이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자연 생태계에서 확인되는 형질 변이와 닮아 있다. 자연 생태계에서의 형질 변이는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는데 유리한 형질이 후손에게 이어지도록 유전적 변이가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의 핵심은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한 적응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형질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모도하게 되는데 이에 성공하면 살아남게 되고 실패하면 멸종하게 되는 것이다.³⁵

이러한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분석해 보면, 등장물들 대부분이 기존의 존재 방식이나 기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34. 정규식, 앞의 책, 29~31쪽.

35.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자연 변화는 다수의 종이 동시에 멸종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 말해, 자연 질서가 훼손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을 맞아 등장물들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나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 즉 위기의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맞게 변이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 이야기에서 파리가 불을 끈다든지 달걀이 불속에서 터진다든지 바늘이 부엌 바닥에서 찌른다든지 절구통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내려친다든지 덕석이 호랑이를 감는다든지 하는 것은 이 등장물들이 지닌 원래의 존재 방식이나 역할들과는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다. 즉, 설화적 차원의 형질 변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의 위치와 역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등장물 ³⁷	위치	역할
파리	벽, 천장 등	불을 끈다.
달걀, 밥	불속	터지다.
바늘, 송곳 등	부엌바닥	찌른다.
자라, 개 등	합지, 기물통 ³⁸ 등	깨물다.
맷돌, 절구통 등	방문 위, 지붕 위	내려치다.
덕석	마당	감싸다.
지게	사립문 옆	짚어지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파리나 맷돌 등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고유한 존재 방식들이 있다. 파리는 음식물 주위에 맴돌면서 먹이 활동을 하고 번식을 하며, 맷돌은 부엌 가까운 곳에서 윗돌과 아랫돌이 결합되어 곡식류를 빻거나 가는 제분(製粉)의 기능을 하는 도구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은 원래 자신이 지녔던 고유한 특징을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 파리는 원래 벽에 붙어 있는 존재이지만 불을 향해 날아가지는 않는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벽이나 줄 등에 붙어 있다가 밝아지면 활동을 하지만 뜨거운 불을 향해

36. 각편에 따라 등장물의 종류와 등장 순서 등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등장물의 위치나 역할은 대부분 비슷하다.

37. '구정물통'을 의미한다.

날아가는 부나방 같은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파리가 불을 끄는 존재로 등장한다. 결국 기존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 주어진 환경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맷돌도 마찬가지로이다.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버리고 전혀 다른 위치(부엌→지붕 위)에서 새로운 역할(제분→내려침)을 수행한 것이다. 바늘이나 송곳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주로 반질고리나 공구함에 위치하면서 가죽이나 면직물류를 깎거나 뚫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부엌바닥에서 호랑이를 찌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치와 역할이 변이된 것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니치에서 장소와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의 서식지가 어디냐에 따라 먹이 활동 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맞는 행위, 즉 역할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어떤 생명체의 위치와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 존재의 니치가 변화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형질 변이를 도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은, 예외 없이, 적어도 위치나 역할 가운데 하나 이상에서 기존 방식과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그 결과 호랑이라는 강력한 질서 파괴자에 맞서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산출했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유한 형질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형질을 획득해야만 된다는 메

38.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첫째 달걀이나 밤의 희생이다. 다른 등장물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달걀이나 밤은 불속에서 터져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게의 형질 변이이다. 다른 등장물과 달리 지게는 위치나 역할에서 어떤 변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니치적 관점의 공생은 모든 개체적 생명체가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모든 개체가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며 그것은 오히려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개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니치적 공생은 특정 종 혹은 종들의 단절이나 절멸로부터의 공생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종이 다수의 종들이 멸종하게 되면 종 다양성이 파괴되고 그들이 지닌 유전자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처럼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는 것은 자연 생태계의 연쇄적 붕괴를 전조하며 이는 곧 공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 내부 혹은 종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체의 죽음은 오히려 니치적 공생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달걀이나 밤이 이야기에서 희생된다고 해서 닭이나 밤나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지게는 이야기의 서사 전개에서 다른 등장물들과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지게는 호랑이가 이미 죽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등장물들과 유사한 방식의 형질 변이가 굳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해할 수 있다.

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주지하듯,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위기를 맞았을 때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대응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 거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때 우리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가 보여준 위기 극복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며 변화된 방식이 아니면 극복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전적 차원의 형질 변이는 오랜 시간 서서히 진행된다.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형질 변이는 짧은 시간 급격히 진행되기도 한다. 우리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사회적 현상이 어떤 계기로 순식간에 변하는 경우를 여러번 경험했다. 코로나 19로 갑자기 다가온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나 언택트(Untact) 방식의 도래는 좋은 예이다. 싫든 좋든 변화된 환경에서 생존하고 번식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의 유전적 형질도 이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이를 모색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의 공생이다. 만약 코로나 19 상황에서 우리 인간만을 위한 변이를 선택하게 되면 인간 이외의 존재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그것은 다시 자연 전체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결국 공멸의 시간을 재촉하게 된다는 점이다. 언택트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당장의 문제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는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만 더 깊이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 급증 현상이 왜 발생하는가? 언택트로 포장이나 배달 음식의 비율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인간의 먹을거리에 대한 변이가 아니라 음식을 획득하는 방식만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본질을 바꾸지 않고 과정만 다르게 했을 뿐이다. 근본적 변이가 없으니 파생적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공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변화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형질 변이는 자신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근원을 유지하면서 외형만 바꾸는 것으로는 안 된다. 파리처럼 불길에 뛰어들어야 하고 달걀처럼 자신의 몸을 터뜨려야 하고 게처럼 바닷물이 아닌 구정물에서 살아야 한다. 근원적 변화가 없는 문제 해결은 미봉책이며 비슷한 상황을 언제든지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정 종인 인간만이 아닌 자연 질서의 회복을 위한 형질 변이가 중요한 이유이다.³⁹

니치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 바로 이 지점에서 ‘팔죽’의 의미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린다. 이 이야기의 등장물들은 하나같이 팔죽을 한 그릇씩 비우고 할머니를 돕는다. 따라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팔죽은 바로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징하는 연대의 표상이다. 그러므로 호랑이를 제외한 모든 등장물들은 팔죽으로 이어진 하나의 공동체로서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는 존재들이다. 할머니 따로, 달걀 따로, 맷돌 따로, 호랑이와 맞을 수 없다. 각자도생은 불가능하며 하나의 끈으로 묶인 운명공동체인 것이다.

우리의 자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오염이나 전염병 등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종을 위한 근시안적인 선택을 한다면 생태계의 파괴를 막을 수 없다. 우리는 수많은 생명체들과 많은 것을 공유한다. 땅이 그렇고 물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다. 인간만을 위한 것은 없다. 이 이야기에서 팔죽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듯 우리는 같은 땅, 물, 공기를 공유하는 존재들과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로 이점이 본고가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니치적 관점으로 해석한 공생에 관한 인문학적 의미이다.

V. 결론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시점에서 설화 연구가 지향해야 할 지

39. 정규식, 앞의 책, 8쪽, 100~101쪽.

점은 어디일까? 인간과 인간 삶에 대한 진리를 찾는 것이다. 아니,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 인간 이외의 존재와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었다면 본고는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어떻게’ 구현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인데 그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이 구현되었는가? 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논의하였다.

오늘날 사회에서 ‘어떻게’의 관점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무엇’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가 중요한 시대이다. 때문에 단순히 ‘서로 힘을 합쳐서 위기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발휘하게 되는 상호작용의 원리, 관계,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본고는 이 이야기를 새롭게 분석하기 위해 니치라는 생물학적 관점을 적극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탐욕스러운 강력한 지배자 혹은 권력자와 순하고 착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피지배자(백성, 민중)의 대결에서 힘없는 민중들이 지혜를 모아서 권력자의 횡포를 극복하여 위기를 헤쳐나가는 이야기라는 해석을 넘어서고자 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나 추측하듯, 껌질을 까지 않은 밤이 불속에서 갑자기 터지는 현상이나 뽀족한 바늘과 송곳에 찢리는 것, 계의 집계발에 물리는 것, 그리고 육중한 무게를 지닌 맷돌이나 절구통이 높은 곳에서 내려치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등 일상적 삶 속에서 경험했거나 상상했던 것들을 흥미롭게 구성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이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이런 차원의 해석이나 약자와 강자의 대결에서 약자가 어리석은 강자를 물리치는 소화적 성격의 이야기로 해석하고 말 수는 없다. 설화의 세계는 무궁하고 무한하다. 새로운 관점으로 끝없이 해석해야 할 대상이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니치적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는 다양한 등장물들이 펼치는 적소와 공동체의 원리가 설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적소와 공동체의 원리는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니치의 특징이다.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각자의 고유한 니치를 통해 그것을 극복하면서 공생을 도모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주로 형질 변이가 동반되는데 이는 자신의 고유한 형질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에서 파리, 달걀, 바늘, 자라, 맷돌 등 여러 사물들은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변화시킨다. 호랑이라는 강력한 존재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화에 등장하는 등장물들이 고유한 위치와 역할을 변화시킨 것은 일종의 설화적 차원의 형질 변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설화를 강자와 약자의 대립에서 약자들이 승리하는 과정에 대한 소화적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공생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담은 이야기임을 고찰하였다. 그러면서 이 설화를 통해 공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었다. 특정 종을 넘어선 다양한 생명체의 공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각각의 변화를 통해 획득하는 것인데 그 변화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분명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문학의 영역인 설화를 과학적 관점으로 해석하다 보니 무리하게 적용한 부분이 없지 않다. 문학과 과학은 상당히 다른 영역의 학문이므로 문학의 과학적 해석이나 과학의 문학적 해석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본고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추후 논자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설화 문학을 니치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존재 방식을 통해 성찰할 수 있는 공생에 대한 인문학적 의미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본고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임석재 전집 2,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 편 2, 평민사, 1988.
- 임석재 전집 7, 『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 편 1, 평민사, 1990.
- 임석재 전집 10,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 편 1, 평민사, 1993.
- 임석재 전집 12, 『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 편, 평민사, 1993.
- 권혁래, 「팔죽할멈과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 김기호, 「성숙의 매개자인 설화 내 동물 형상」, 『한국고전연구』 1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77~106쪽.
- 김복순, 「동물담의 웃음 유발 방식과 특성 - 바보 호랑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62, 중앙어문학회, 2015, 89~215쪽.
- 레비 스트로스, 『야생의 사고』, 안정남 옮김, 1996.
- 박상란, 「구전설화에 나타난 빈자들의 욕망과 공생윤리」, 『동악어문학』 64집, 동악어문학회, 2015, 43~73쪽.
- 신연우, 「『녹두영감』과 『팔죽할멈』 설화의 문화사적 이해」, 『구비문학연구』 41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15, 177~204쪽.
- 신혜선, 「전래동화 『팔죽 할멈과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4권 6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67~487쪽.
-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다중적 상징과 민중의 권력 인식」, 『실천민속학연구』 19집, 실천민속학회, 2012, 187~232쪽.
- 장대익, 『다원의 식탁』, 김영사, 2008.
- 정규식, 『중간공동체론』, 인문과교양, 2017.
- 최재천, 『호모 심비우스』, 이음, 2011.
- 한국구비문학대계 웹 사이트 (<https://gubi.aks.ac.kr/web/Default.asp>, 2020년 9월 30일 접속)
- 「Ecological niche」 (<https://www.linkedin.com/pulse/ecological-niche-dr-tohid-nooralvandi>, 2020년 9월 27일 접속)

Abstract

A study on the niche characteristics and the humanistic meaning of symbiosis in the folk tales of “Red Bean Porridge Grandmother and Tiger”

Chung, Ku-Sik (Dong-a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erpret the story of “Red Bean Porridge Grandmother and Tiger” from a niche perspective. This story has been discussed centering on the funny story and the cooperation of the weak. It was interpreted as a victory of the people against the powerful by setting the tiger as a powerful person and the grandmother and characters as the weak or the people. This paper does not stay here, but focuses on how to work together, that is, how to solve problems. This paper does not stay here, but focuses on how to work together, that is, how to solve problems. In this process, niche, which means ecological status, was used. Niche is the law of maintaining species diversity in natural ecosystems, where the principles of niche and community work. Using this, this paper examined the emergence of a crisis situation, the aspect of seeking a method for solving problems, and a niche interaction method centered on the right place and community principle. The problem-solving method was intensively analyzed through character variation, and through this, the humanistic meaning of symbiosis was also considered. In the end, this story goes beyond the funny story of the process of winning the weak in confrontation with the strong, it can be said to be a story that contains a concrete way of reasonably solving a certain crisis situation and the true meaning of symbiosis.

Keywords: “Red Bean Porridge Grandmother and Tiger”, niche, the right place, community, character variation, symbiosis

논문 투고일 : 2020년 10월 13일 심사 완료일 : 2020년 10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20년 10월 28일
